

尹錫悅訪美墜芯片陷阱 三星業績慘跌汽車補貼取消

韓國總統尹錫悅和美國總統拜登的韓美首腦會談沒有成果，美國要求韓國企業不要擴大出口到中國，但得到的補助較美企少，還要與美國政府分享未來超額利潤和會計資料。

許東嫻

韓國總統尹錫悅於四月三十日結束為期七天的訪美回韓，在美國和東亞之間的一系列經濟合作問題中，在華盛頓的尹錫悅和美國總統拜登的會談受到了企業界的關注。韓美首腦會談的議案之中，

這使韓國商界感到緊張。但是，在尹錫悅和拜登的會談上，沒有就兩項法案相關懸案達成實質性協議，韓國總統室首席經濟秘書崔相穆在華府向記者表示，「《通膨削減法》和《晶片與科學法》是為了促進美國國內投資和加強供應網，在

此次會談中確認了將通過兩項法案，「我們為了在履行《晶片與科學法》中，最大限度地減少企業投資的不確定性及經營負擔，並在履行半導體出口控制中最大限度地減少全球半導體供應網的干擾，將緊密合作」。

些工廠希望繼續運轉，必須每一年都緩期實施封殺。第三，關於《晶片與科學法》，只有三星電子和SK海力士實行「與美國共享超額利潤並提交會計數據」，才能得到華府的補貼。



尹錫悅和拜登：韓國被美國佔盡優勢

美國的《晶片與科學法》(CHIPS and Science Act)使韓國半導體公司與美國共享超額利潤並提交會計數據，《通膨削減法》(Inflation Reduction Act)也使現代汽車無法獲得美國的電動汽車補貼並影響韓國電池企業，

美國政府的實務協商，減少兩個法案對韓國企業產生的「不確定性」的共同認識。陪同尹錫悅訪美的產業通商資源部長李昌洋和美國商務部長吉娜·雷蒙多(Gina Raimondo)在第一次韓美供應鏈與商業對話(Supply Chain and Commercial Dialogue)也表

示，「我們為了在履行《晶片與科學法》中，最大限度地減少企業投資的不確定性及經營負擔，並在履行半導體出口控制中最大限度地減少全球半導體供應網的干擾，將緊密合作」。

對於這樣的會談發表，韓國的保守和進步媒體都在指責美國。親執政黨的保守媒體《朝鮮日報》指，這次會談如何解決《通膨削減法》和《晶片與科學法》對韓企的歧視問題並不明確，那說明有關的問題是個難題，因此將需進一步協商。親在野黨的進步媒體《京鄉新聞》也指出，兩位首腦雖然表現出了肯定的態度，但不出所料，沒有具體的內容，也沒有美方對管制出口中國半導體時，對韓企的例外措施做出具體答覆。兩法有關的韓企負擔及歧視問題有四點。

三星：被美國強迫不要擴大中國市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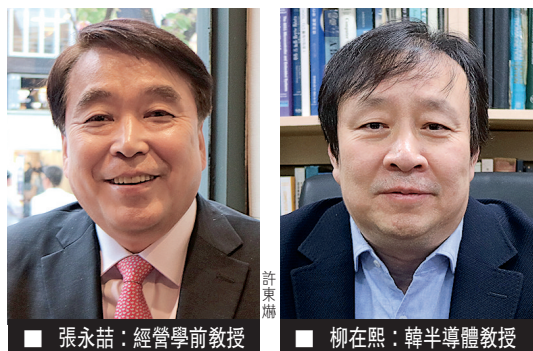


年三星電子的NAND閃存和SK海力士的DRAM的百分之四十在中國生產，這兩家公司的產品也有百分之四十出口到中國，況且兩家公司今年第一季度的業績是虧損的。

三星電子二零二三年第一季度在半導體領域創下了約四兆五千八百萬韓元（約三十四億美元）的歷史最高赤字，韓國媒體分析說，由於全球的DRAM需求不振，三星電子的減產比其他公司晚，因此出現了過剩庫存，另外，三星的最大市場之一的服務器市場收益惡化，例如第一季度DRAM平均售價比前一季度下降百分之二十，並且NAND閃存下降百分之十到十五。

SK海力士在二零二三年第一季度也出現了約三兆四千二百三十三億韓元（約二十六億美元）的赤字，主要原因是DRAM和NAND閃存的價格下降，二零二一年SK海力士收購英特爾NAND部門「Solidigm」

時，收購價格過高——九十億美元——對此次赤字產生了影響。在這種情況下，一位三星電子的管理者向亞洲週刊稱，「公司職員們一直都經歷着危機，相信這次也



張永喆：經營學前教授
柳在熙：韓半導體教授

能很好地克服」。《朝鮮日報》在社論中表示，雖然將韓美同盟關係擴大到產業技術領域是值得提倡的，但韓企不應單方面遭受損失。《京鄉新聞》在

社論中也認為，此次韓美峰會是說明對中國依賴度高的韓企的結構特徵並請求諒解的機會，但美方維持了原則，韓方的憂慮並沒有消除，並且三星電子和SK海力士二零二三年第一季度虧損，因此對於只希望美方妥善處理的半導體「兩水田」現象，需要特別的對策。

韓國弘益大學半導體系統設計專業的柳在熙教授（兼任韓國半導體工程學會副會長）表示：「大部分人認為，在尹總統訪美期間，作為重要協商議題的《晶片與科學法》沒有具體內容釋出，可被視為協議遇到了困難，其中提及的內容是，促進韓美兩國的共同研究及人力交流，美國認為《晶片與科學法》不是為了牽制中國，而是為了加強美國的供應鏈等，其意義含糊。」

柳在熙分析，因為韓國應對朝核問題，在韓美峰會上國家安保成為高優先級，目前美國推遲對在華韓國半導體企業工廠出口產品的控

制措施即將於今年十月到來，將進一步減少韓企出口收入，因此韓國處於複雜情況。

在今後兩國工作組協商中，預計將討論對韓國造成負擔的如下美國補貼支援條件：技術及營業機密公開程度調節、超額利潤回收的具體計算方法及執行程序、放寬並推遲中國投資護欄等等。另外，還可以預測與《晶片與科學法》的其他參與國家及地區如日本、台灣等也會共同應對。柳在熙認為，中國諒解在韓美峰會上安保問題的優先次序，並且在今後制定地緣政治政策的同時，仍然通過外交和其他企業間渠道與韓國進行緊密合作。

不可能完全排除中國

韓國崇實大學安保經營學前教授張永喆認為，目前的世界供應網基於自由貿易理念進行了三十多年，其中中國是製造業的一個軸心。張理解美方出於安全考慮排

除中國，但短期內不可能完全排除，需要兩至三十年，這一點是美媒也指出的。半導體不是單純的消耗產品，而是在高度熟練的人力和勤勞的勞動文化發達的國家及地區，即韓國和台灣可以生產，那些地方的工價比美國也更便宜，如果美國要具備半導體生產能力，今後需要二三十年。

張永喆強調，為了收到補貼向美國提供韓企內部信息是無稽之談，不行的話半導體製造費用和價格可能大幅上漲，結果會助長通貨膨脹，那違背了《通膨削減法》的意圖，一律悖反。「共享超額利潤」就是與共產黨的想法一樣，不是以民主市場經濟為基礎的美國該說的話，反而會損害同盟國家。一九八零年代日本泡沫經濟達到頂峰時，美國通過「廣場協議」設法阻止了日本的勢頭，如果現在美國再次使用那種強壓手段，對美國也會造成損失，而且會損害同盟關係。

한국 대통령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한미 정상회담은 성과 없이 마무리되었다. 미국은 한국 기업이 중국 수출을 확대하지 않도록 요구했지만 미기업에 비해 보조금이 적고 미래 초과이익과 회계 정보를 미국 정부와 공유해야 했다.

한국 대통령 윤석열은 4월 30일 7일간의 미국 방문을 마치고 돌아왔다. 미국과 동아시아 사이의 일련의 경제 협력 문제 중, 워싱턴에서의 윤석열과 미국 대통령 바이든의 회담은 기업계의 관심을 받았다. 한미 정상회담의 의제 중, 미국의 "칩스 앤 사이언스 법"(CHIPS and Science Act)은 한국 반도체 기업과 미국이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회계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며, "인플레이션 감소 법"(Inflation Reduction Act)은 현대자동차가 미국의 전기차 보조금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한국 배터리 기업에도 영향을 미쳤다. 이로 인해 한국 상공계는 긴장을 느끼고 있다.

하지만 윤석열과 바이든의 회담에서 두 법안과 관련된 미해결 문제에 대해 구체적인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한국 대통령실 최고 경제비서인 최상목은 워싱턴에서 기자들에게 "인플레이션 감소 법과 칩스 앤 사이언스 법은 미국 국내 투자를 촉진하고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이번 회담에서는 두 나라 정부 간의 실무협상을 통해 두 법안이 한국 기업에게 불확실성을 미칠 수 있는 부분을 공동 인식하고 줄이기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윤석열의 미국 방문 동행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인 이창양과 미국 상무부 장관인 지나 라이몬도는 제 1차 한·미 공급망 및 상업 대화에서 "우리는 '칩 및 과학 법률' 이행에서 기업 투자의 불확실성과 경영 부담을 최대한 감소시키고, 반도체 수출 통제 이행에서는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의 간섭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 밀접하게 협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한국 기업 차별

이와 관련해 한국의 보수 및 진보 언론은 모두 미국을 비판하고 있다. 야당인 보수 언론 '조선일보'는 "이번 회담에서 '인플레이션 감소 법'과 '칩 및 과학 법률'에 대한 한국 기업의 차별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이 명확하지 않다"며 이에 관한 문제가 어려운 문제임을 시사하며 추가적인 협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정당인 진보 언론 '경향신문'도 이번 회담에서 양국 수장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예상대로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으며, 중국 반도체 수출 제한 시 미국 기업의 제외 조치에 대한 미국 답변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된 '인플레이션 감소 법' 및 '칩 및 과학 법률'과 관련된 한국 기업 부담 및 차별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물가 인하법'으로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건설 중인 전기 자동차 공장이 2025 년 이전에 완공될 경우 미국 정부의 전기 자동차 보조금을 받을 수 없다. 현대자동차가 공장 완공 일정을 앞당길지라도 최소 1 년 이상은 보조금 혜택을 누릴 수 없다.

두 번째, 미국은 작년 10 월 중국으로 수출되는 최첨단 반도체 장비에 대한 금지 조치를 내렸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중국 공장만이 금지 조치를 1 년 연기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장들은 계속 운영하려면 매년 금지 조치를 연기해야 합니다.

세 번째, '칩과 과학법'에 관한 것으로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만이 "미국과 초과이익을 공유하고 회계 데이터를 제출"하면 미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영국의 금융 타임즈는 한미 정상회담 전에 미국이 한국에게 요청하여, 만약 중국이 마이크론(Micron)과 같은 미국 칩 제조업체의 DRAM 을 금지하는 경우, 미국은 한국의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등 한국 기업이 중국 관련 시장의 허차를 채우지 않기를 바란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한국 언론은 한국 정부와 기업이 관련 입장을 밝히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특히, 금융 타임즈의 보도가 현실이 된다면,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것이므로 한국 기업들에게는 더욱 "눈길을 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년 삼성전자의 NAND 플래시와 SK 하이닉스의 DRAM 의 40%가 중국에서 생산되며, 이 두 회사의 제품 중 40%도 중국으로 수출됩니다. 게다가 이번 분기에 이 두 회사의 실적이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삼성전자는 2023 년 1 분기에 반도체 분야에서 약 4 조 5 천 8 백억 원(약 34 억 달러)의 역사상 최대 적자를 기록했다. 한국 매체는 전 세계적인 DRAM 수요가 부진한 가운데, 삼성전자가 다른 기업에 비해 생산을 줄이는 데 늦어, 과잉 재고가 발생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삼성의 최대 시장 중 하나인 서버 시장 수익이 악화되어, 예를 들어 1 분기 DRAM 평균 판매가격이 전분기 대비 20% 하락하고, NAND 플래시도 10~15% 하락했다.

SK 하이닉스도 2023 년 1 분기에 약 3 조 4 천 2 십 3 억 원(약 26 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했다. 주요 원인은 DRAM 과 NAND 플래시의 가격 하락이었으며, 2021 년 SK 하이닉스가 인텔 NAND 부문 'Solidigm'을 인수할 때 지나치게 높은 인수 가격(90 억 달러)이 이번 적자에 영향을 미쳤다. 이에 삼성전자의 한 관리자는 아시아 주간지에 "회사 직원들은 항상 위기를 경험해왔고, 이번에도 잘 극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사설에서 한·미 동맹 관계를 산업 기술 분야까지 확대하는 것은 권장할 가치가 있지만, 한국 기업이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경상신문도 사설에서 이번 한·미 정상회담은 중국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의 구조적 특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기회였지만, 미국측이 원칙을 유지해 한국 측의 우려를 해소시키지 못했으며,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가 2023년 1 분기에 적자를 기록했기 때문에, 미국측이 적극적으로 대응해주길 바라는 반도체 "비와 밭" 현상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국 홍익 대학 반도체 시스템 디자인 전문 교수인 유재희 교수(한국 반도체 공학회 부회장 겸임)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윤 대통령이 미국 방문 중에 중요한 협상 안건으로 지정한 '칩과 과학법'이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는 협상이 어려움을 겪었다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이 법안에서 언급된 내용은 한·미 양국의 공동 연구 및 인력 교류를 촉진하는 것이며, 미국은 '칩과 과학법'이 중국을 제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공급망 강화를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의미가 모호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유재희 분석에 따르면, 한국의 핵 문제 대응으로 인해 한·미 정상회담에서 국가 안보가 우선순위가 되었으며, 현재 미국은 중국 내 한국 반도체 기업 공장에서의 수출품품에 대한 통제 조치를 연기하고 있으나, 이번 조치는 올해 10월에 예정되어 있어 한국 기업들의 수출 수익을 더욱 줄일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국은 복잡한 상황에 처해 있으며, 앞으로 양국의 교섭에서는 다음과 같은 미국의 보조 지원 조건에 대해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술 및 영업 비밀 공개 정도 조절, 초과 이익 회수의 구체적인 계산 방법 및 실행 절차, 중국 투자 보호 장벽의 완화 및 연기 등. 또한, 일본, 대만 등 다른 참여 국가 및 지역과 함께 "칩과 과학 법"에 대한 대응도 예상된다. 유재희는 중국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안보 문제를 우선시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앞으로 지리적 정치 정책을 수립할 때에도 외교적 및 기업 간 채널을 통해 한국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기대한다.

중국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송실대학 안보경영학 전 교수인 장영실은 현재 세계 공급망이 자유무역 이념에 기반하여 30여년간 운영되어왔으며, 그 중 중국은 제조업의 중심지이다. 장 교수는 미국이 안보 고려로 중국을 배제하는 것을 이해하지만, 단기간 내에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이는 미국 매체도 언급한 바이다. 반도체는 단순한 소모품이 아니라, 높은 숙련된 인력과 부지런한 노동 문화가 발달된 국가와 지역인 한국과 대만에서 생산할 수 있다. 그러한 지역의 임금은 미국보다 더 저렴하다. 미국이 반도체 생산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20~30년이 필요하다.

장 교수는 보조금을 받기 위해 한 기업의 내부 정보를 미국에 제공하는 것은 근거 없는 이야기라며, 그렇지 않으면 반도체 제조 비용과 가격이 크게 올라가서 인플레이션을 촉진하게 되고, 이는 인플레이션 축소법의 의도에 반하는 것이다. "초과 이윤 공유"는 공산당의 생각과 같으며 민주적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이 할 말이 아니며, 오히려 동맹국을 손상시킬 수 있다. 1980년대 일본 버블 경제가 정점에 이를 때 미국은 "플라자 합의"를 통해 일본의 추세를 막았다. 만약 미국이 그러한 압박 수단을 다시 사용한다면 미국에도 손실을 입힐 뿐만 아니라 동맹 관계를 손상시킬 것이다.